

21세기 신 직장인을 꿈꾼다

Success from Passion



“험한 파도가 유능한 항해사를 만든다”

스타 플레이어가 지도자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지적에, 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 프로야구 감독이 한 얘기다.

최근 연패를 거듭하며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프로농구 동양오리온스는 ‘슛도시’ 이충희 감독을 7개월만에 퇴임시켰다. 지난해 전주 KCC 감독을 맡아 최하위로 추락한 경험이 있는 ‘농구 천재’ 허재는 혹독한 신고식을 한 셈이다.

스타 플레이어=유능한 감독?

스포츠계에 종사하지 않는 비전문가가 과연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감독직을 잘 수행하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고 진단하기에는 주체념한다고 보기에 언급은 자제하겠다. 그러나 헤드헌터가 보기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유능한 감독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수 있다.

기업에서 팀장, 또는 본부장이나 임원, 더 나아가서는 CEO를 감독이라 치면, 직원들을 선수이다. 직장생활 하다보면 많은 상사를 경험한다.

과연 어떤 상사가 훌륭한 상사인가?

리더십도 있으면서 부하직원들을 포용하는 상사를 성원들은 따른다. 그 팀이나 조직의 업무 성과도 우수한 편이다. 사원 시절, 또는 부하직원일 때 혁혁한 업무 성과를 이끌어내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함으로써 임원에 오른 사람은 기대치가 높다.

스타 사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든 성원들에게도 같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각자 능력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왕년에 나는..’ 이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 잘났다’는 반발과 냉소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 조직은 모래알같은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스포츠의 예를 차용해

표현하자면 우리는 프로농구 선수를 질주하고 있는 원주 동부의 전창진 감독의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알기론 전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 출신도 아니며 감독직에 오르기까지 소위 엘리트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구단의 주무 출신이다. 주무가 어떤 자리인가? 구단의 온갖 잡다한 일을 처리하며 선수들을 챙기는 이른바, 집사 내지는 시쳇말로 '시다바리' 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감독직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프로농구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발돋움시켰다. 구단의 정서, 프런트의 Needs, 주무시절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선수들을 챙기며 아픈 곳,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큰 형님같은 역할이 감독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게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제주의 돌처럼

생똥맞게 제주도 얘기를 해보자.

요즘 조선시대 최고의 내시였던 '김처신' 을 다룬 드라마 '왕과 나' 에서는 '삼능 삼무' 란 말이 회자되던데, 제주는 잘 알다시피 '삼다 삼무' 의 섬이다. 제주는 국토 최남단에서 가장 많은 비바람과 태풍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맞는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삼다중 하나인 '바람' 이 강하고 잦은데도 담은 무너지는 법이 별로 없다. 역시 삼다중 하나인 '돌' , 그것도 구멍이 뚫리고 흠이 수도 없이 패인 현무석으로 대충 대충 쌓아놓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화산으로 상처를 입은 현무암이 강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도에 큰 홍수가 없는 것, 담벼락이 끄덕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스피지와도 같은 현무암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같다고 생각한다.

유복한 가정에서 고생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성장한 온실속의 사람들, 살아가면서 좌절이나 실패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난관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실연이든 가난이든, 고난이든 그런 상처 하나씩은 가슴에 남겨진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거친 삶, 밑바닥을 경험하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제주의 돌처럼 모두 빨아들여 언제나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뚫린 만큼 들어갈 공간이 큰 것이다.

직장에서 날고 기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사가 되었을 때, 과연 사원 때처럼 유능한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필자는 부정적이다.

얻어 터지고 깨지며 치열하게 사원생활을 견뎌낸 사람만이, 아랫사람의 애환을 감싸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사는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덕장' 이기에 직원들이 잘 따를 수밖에 없다.

스핀지가 되면 블랙홀이 된다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라이트형제' 였지만 지금 비행기는 형제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 비행기는 '보잉' 이나 '에어버스' 가 만든다. 수만명이 제작한다는 것이다.

독불장군 시대는 갔다. 회사는 조직이며 시스템이다. 성원들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 다양성, 차별성을 인정해주고 이를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용인술을 발휘하는 것은,

정시돈 (주)타이거써치 대표컨설턴트

타이거써치는 IT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인재를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등에 다수 추천한, 경쟁력있는 써치펌이다. 사무실은 테헤란로에 있으며, 필자는 이곳의 대표컨설턴트를 하고 있다.